니체의 마지막 선물

1장 가면을 사랑하라

생의 기쁨을 만드는 다면성의 힘

왜 우리에겐 가면이 필요한가

- 다원화된 사회에서 가면과 다원성은 우리가 즐겁게 인생을 살아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되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 세상에는 우리가 쓰고 싶은 가면도 있지만, 거부하고 싶은 가면도 있다. 사회가 강요하는 가면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을 계속 넘어서는 삶

- 언제까지나 제자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스승에 보답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어떻게 삶을 사랑하느냐고? 새 가면을 찾아라

- 나 자신이 마음에 드는 가면을 찾아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 가면을 계속해서 바꿔 쓰라. 그러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즐겨라!

2장 자기 자신의 신이 되어라

- 신의 죽음이란 새로운 시대를 아리는 선언에 가깝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게 됐다는 직접적인 의미인 동시에,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즉,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 이제는 니힐리즘 허무주의의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이다.
- 세상과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 어떤 장애물도 기꺼이 마주하고 넘어설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니체는 超人이라고 했다.
- 니힐리즘은 허무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니체는 허무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허무의 긍정이라고 할까나... 아무튼 단순한 니힐리즘은 아니지요. 니체는 쇼펜하우워의 영향을 받았는데,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허무하고 고통에 찬 걸로 봐서, 삶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니체의 경우는, 어쩌면 쇼펜하우어처럼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삶을 긍정합니다. 쇼펜하우어나 니체 이전에는 대부분의 철학자들까지도, 신의 존재,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니체는 돌연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죠. 그것은 바로 그 때까지의 서구 철학들이 맹신하던, 신, 이성, 관념론... 등의 모든 인간에게 특별한 가치를 주던 것, 인간에게 존엄성을 준다고 볼 수 있었던 가치의 부정이죠. 즉, 인간은 어떻게 보면 별 거 아닌 존재입니다.... 아마 니체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노예의 종교라고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는보다 우호적이였으나, 불교의 현실회피적인 모습도 그리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니체는 우리 삶의 진실을 직시하고, 그 삶과 인간의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긍정하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참... 이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죠..
- 카뮈의 시지프스의 신화를 읽어보았습니까? 저는 니체를 생각하면, 시지프스가 생각납니다. 어차피 굴러 떨어진 돌을 끊임없이 굴리면서도,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시지프스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지프스가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은 돌을 굴려 꼭대기에 올리면, 무엇인가 상이 있다거나, 노동이 끝난다거나 할 거라도 믿는 것일 겁니다. 즉, '신'을 믿는 것이죠. 아니면, 무의미하므로, 삶을 멸시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건 쇼펜하우어 같은 염세주의겠죠. 그러나, 꼭대기에 올라가도 아무 것도 없는 줄 알면서도, 웃으면서 돌을 굴리는 것은 니체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 삶의 무의미, 부조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쉽게 '죽으면 다 끝이지' 말하긴 하나, 그 사실을 정말로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믿기도 하고, 정치적이든 도덕적이든, 그런 가치들에 매달리는 것 아닐까요?
- 그러나... 신(여기서의 신은 꼭 종교적인 신만이 아닙니다)이 죽었다는 것은, 허무의 발견일 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인간이 스스로의 가치를 획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고대 신화의 디오니소스처럼 삶을 위하여 삶을 즐겨도 좋은 것이지요.
- 그냥 제 생각이고, 니체에 대해 정확한 해석이라고는 말 못하겠군요. 니체는 초인을 부르짖었지만, 그 자신은 정신병을 앓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아무런 신적인 가치 없이 자기 자신과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즐긴다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장 영원히 반복해도 좋을 하루를 살아라

- 니체 역시 쇼펜하우어와 같이 [비극의 탄생]에서 삶의 고통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 '예술'을 꼽았다.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아픔을 위로해줄 것이 필요ᄒᆞ. 바로 예술의 역할이다.

‘영원회귀’라는 놀라운 아이디어

- 살아가는 일은 같은 일의 영원한 반복이라는 사고로 전환하게 된다.

시지프적 전환

-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오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 똑같은 일들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최선을 다한 하루를 살았는가?

4장 예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관점주의라는 빨간약

예술에서 시작된 철학

자신만의 선을 창조하라

인생에 정답은 없다

과학도 의지다! 패러다임 이론

삶의 기쁨을 만드는 힘

5장 착하게 사는 것만큼 나쁜 건 없다

약자는 강자를 질투한다

-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용되는 자연과 달리 인간 세계에서는 ‘도덕’이 통용된다. 왜 그럴까? 바로 그 자체가 약자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사회적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도덕을 파괴하다

-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지식이나 보편적인 도덕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힘을 증대시키려고 애쓰는, 르상티망과 노예도덕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지배자가 되려는 강력한 힘에의 의지야말로 최종적인 도덕의 근거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바로 니체가 '귀족 도덕' 또는 '주인의 도덕'이라 부른 것이다.

왜 착한 사람이 가장 나쁜가?

- 약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저렇게 비도덕적이고 악한 존재가 되지 말자. 선한 존재가 되자. 남에게 힘을 휘두르지 않고, 해치지 않고, 우리처럼 매사에 인내하면서 겸손하자'하고 말이다. 니체에 따르면, 이것은 비겁한 정신승리이자, 강자에 대한 가스라이팅이다.

모든 것을 뒤엎는 전복의 철학자

기독교가 퍼뜨린 약자의 르상티망

- 민주주의나 평등주의 같은 사고관 역시 기독교에서 생겨난 노예 도덕이라며 비판했다. 이런 식의 사고가 모두 힘에의 의지를 포기한, 약자의 르상티망이자 왜곡된 정당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누가 진짜 강자인가?

6장 삶에 끌려다니지 말라

당당한 초인으로 사는 법

- 초인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존재, 괴로움과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다만 괴로움과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하면서 기꺼이 견디고 이겨낼 줄 아는 사람이다. 굳이 삶의 보람을 찾아내 살아가지 않더라도, 곳곳에서 고통과 허무와 후회를 마주하더라도, 끝끝네 그 삶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사람이다.

7장 아이처럼 명랑하게 살아라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가르침

왜 아이처럼 살아야 하는가

- 아이는 적과 맞서서 그를 쓰러뜨리려 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는다.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이해 자유롭게 논다. 이것이 정신의 최종 단계이며, 초인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아이가 놀이를 반복해서 즐기는 것처럼 , 초인 역시 놀이를 즐기는 존재인 것이다. 과연 '전복의 철학자'다운 발상이다.

니체에게 패러디란 어떤 의미인가

- 니체는 우리에게 다른 목적을 좇느라 힘겹게 살지말고, 그저 놀이할 때처럼 즐기며 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잘 놀지 고민한다

거부할 수 없는 선물

8장 그래서 니체를 만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게 된다

자신에게 솔직해진다

- 니체는 스스로 강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이처럼 도덕을 앞세우거나 집단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정당화하는 태도를 혐오했다. 인생은 어디까지나 자기 힘으로 승부를 겨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강해지고 건강해진다

- 우리는 확정된 좋은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용기라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불투명한 미래, 위험을 무릅쓰고도 꿈과 신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용기라고 부른다. 그런 용기를 갖춘 사람이 바로 강자이자 건강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다.

자유로워진다

- 니체를 만난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진리나 정의, 도덕, 모든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하는 도덕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다한다. 세상이나 타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지금까지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던 진리를 반전시켜 모두 부숴버리고. 새롭게 재구성하자는 것이 바로 '전복의 철학자' 니체의 생각이었다.

- 니체는 말한다.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도덕, 심지어 학문적인 진리에 관해서도 비슷한 표현을 했다. 그는 단호하게 이 세상에 완벽한 사실 따위는 없고, 다만 해석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 그러니 자유롭게 살아라. 세상과 타인에게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영원히 반복될, 그렇기에 단 한 번뿐인 이 순간의 삶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니체의 지혜이자, 그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